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426호

서기 2003년 6월 1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호국영령 추모하는 자세

문 매년 6월이면 많은 사찰에서 호국영령 위령제를 지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를 지내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들의 마음자세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들이 여건이 닿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재를 지내드리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이 부모를 잃었을 때의 그 심정, 저도 6·25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작개비 내뜨린 것과 같이 무더기 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강을 못 건너오고 모래사장에서 허덕이다가 총을 맞아서仆倒 쓰러지고, 수없이 쓰러진 그 시체들을 보기도 하고, 총알을 맞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같이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신차려서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령들을 위해서 해야 할 두세 가지 문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과거에 살던 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재권을 얻어서 자기가 자유로써 모든 길, 12대 중생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응신으로서 나투면

세세하게 말겨야 하는지...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만물만 생을 주인공에 한번 맡겼으면 그만이지 세세하게 다시 또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벌써 일체 만물만 생을 주인공에게 맡겼다면 제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 우리가 단 하루를 사는 데도 세 번 공양을 하듯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이라는 게 늘 고정되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올라오고 변하는 생각을 나온 그 자리에 다시 좋게 돌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봐서는 지구에 바람과 뜨거운 기운이 사람이 먹으면 체하듯이 모두 정상적으로 물이 고르르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니 될 수 있으면 항상 관하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손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손이 그 모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어려운 생활이 교차라고 했죠. 그런 것도 하면서 만약에 80-90% 없어진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우리가 바뀌어 갈라갈 때, 심봉 때문에 바뀌어 갈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심봉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봉은 보이지가 않으니깐 한 사이가 없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지 않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본래면목 그 실상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벌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입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벌써 입증이지 되고, 내가 움죽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만 봐도 벌써 입증이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지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탄 대 형상이나 허공이나 또는, 즉 말하자면 말이나 이런 데에 속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일체를 근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주인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빛깔도 없고 질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한량의 에너지가 같

이 이 삼천대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 무한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인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구!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뭘 해?'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또 '생각을 하지 말라는데...' 그걸 끊어 버리는데...' 아, 그걸 끊어버리고, 몸뚱이 끊어버리고 말 끊어버리고 생각 끊어버리면 뭘 남는 게 있다고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몸뚱이가 있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바 버리고선 뭘로 합니까.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바

이렇게 비치는 것 모양으로 한 줄기 한 줄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줄기가 아니라 그 해 전체에, 하나의 줄기에 붙어있다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해 자체를, 전체를 내가 가지고 거머쥔다면, 거머쥐고 그것이 바로 크다는 생각이 없고 작다는 생각이

없이 근본 나 자체가 바로 주인공 실상이 라는 걸 알게 되면 전체를 한생각으로 움죽거리듯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부딪치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앞에 닥치는 것대로 그것이 바로 법문이요, 법의 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회두요, 그것이 근본이요, 그것이 자아부처라 이겁니다. 불이자 법이고 법이자



그림 · 최주현

지금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용이자 법이고 진리

로 심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시대로 볼 때는 차라고 비유합니다. 차가 있으면 벌써 차 안에 엔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 있는데 엔진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갈래 갈래, 해가 뜰 때에 바늘같이 이렇게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천차 만별로 많은 거죠. 해는 하난데 그 햇빛은 수만 개가 쫓는지 모르죠. 헤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해 하나 속에서 다 그 빛은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실상의 불성은 다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햇빛이 비칠 때에

움어거든요. 그대로 한데 붙어 돌아가는데 어떤 걸 따로따로 이렇게 찾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용이자 그대로 법이고, 법이자 그대로 우리 진리 아닙니까? 여복하면 불성이 돌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도 않기에 진리라고 말을 한마디도 해버렸을 뿐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하여튼 이 정신계라고 그러는 건 이 물질계의 몸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자기 몸을 끌어가고 주장자만이 속의 의식들을, 생명의 의식들을 다 이끌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이렇게 가는 원동력인 주장자이다가, 즉 말하자면 주인공 뿌리죠, 거기다가 말걸 놓으면은 그 다스리는 게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천을 해보지도

않고 하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실천을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을 낸다면 일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는 다 하는 것은 무색할 정도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큰 거든 작든 작든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가 없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떤이 고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걸 조금조금, 이런 굴곡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 이런 굴곡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저 여러분이 진짜 체험을 해서 알고 그 주장자를 잡고 나간다면 성불을 할 거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선 살아서 그대로 움죽거리듯 해야 되겠죠.

올해와 내년은 그렇게 차고 뜨거운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살기가 참 어렵고 머리 돌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항상 공식으로 관을 하고 가십시오. 재차 당부하지만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지해서 어떤 것이든지 지워버리시고 다시십시오.

소공(小空)과 대공(大空)

문 스님 법어집인 『한마음요전』에 보면 소공(小空)과 대공(大空)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옛날에 이런 점이 있지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나서 하도 공이 있는데 공을 누가 움죽거리게 하는 나? 또 그 공 가운데엔 티끌만한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누가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나? 이렇게 물어보셨던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것을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던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것을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던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것을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이 떠나는데 우린 그 공 속의 공과 같습니다. 티끌 공. 그 공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공이 자기 공, 티끌만한 공 속에 자기가 빠져야 큰 공 속에서도 빠지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 모든 걸 몰라 봐 버려라' 하는 것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부정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나오게 하려면 들이고 내는 것을 지켜봐야 이것을 확실히 알게끔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탄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탄생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형성시킨 것뿐입니다.

공에서 형성됐고 그 형성된 자체가 바로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모름으로써 이론이 많고 방황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 육신을 하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중생입니다. 자기 중생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아야, 자기를 몰락 죽이고 인가를 받아야 상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죽어야 그것은 양면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소공의 인가를 받아야 대공의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대공의 인가를 받아야 바로 내가 내가 아니라서 전부 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통은 누구냐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냐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찾으면서 관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모두 추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그 에너지 통, 삼각형으로 된 에너지 통은 바로 내가 그렇게 확실히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들이고 낼 줄 안다면 이게 스스로서 동그어진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게 바로 소공에서 대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이러는 것도 그 삼각형의 에너지 통에 귀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인공의 그 실상 자체와 더불어 내 마음, 분별하는 마음과 육신과 삼합이 한데 합쳐진 삼각형 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삼각형의 에너지 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하는 게

“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겁니다. 안에다가 코드를 꽂고 안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거기다가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나오기 이전 참 자기 에너지 통이거든요. 그러기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찌 먹은 이 컵의 물이 부처님이라면 어찌 먹은 컵의 물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그것이 바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물이 또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뒷생라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컵의 물은 바로 앞의 물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바꿔져서 여기 또 왔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앞의 물은 방치해 두고 뒤의 물만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가 먹고 돌아선 뒤의 물만 생각을 하니깐 앞의 물이 생길 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까지나 계발을 하는 데는 내가 현 시점에서 그 모두를 바탕으로 삼아서, 주춧돌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 길잡이가 모든 것을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발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저께 계산한 거를 또 오늘에 가서 계산을 한다면 되느냐, 어제 계산한 건 어제 계산한 것대로 어제 계산한 거지 오늘 계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계산을 하는 거는 오늘의 나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거의 계산과 미래의 계산이 여기 오늘의 계산으로 합쳐지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그

